

레이메이텐

신덴의 북동쪽에 위치하는 레이메이텐(靈明殿)은 닌나지 절의 말사(末寺)인 기타인 절의 본존이며, 치유 혹은 의술의 부처님인 약사여래상을 안치하기 위해 1911년에 지어졌습니다. 레이메이텐에는 역대 주지의 위패가 안치되어 있으며, 또한 약사여래상 외에도 다양한 상이 단상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삼나무 껍질로 인 지붕과 반복해 사용되고 있는 당초(唐草) 무늬와의 조합이 특징적이며 지붕의 노반 부분에는 법주(法珠)가 장식되어 있습니다. 당초 무늬는 교토의 장인 가메오카 스에키치(1865~1922년)가 즐겨 사용하던 디자인이며, 가메오카는 고전적인 일본의 건축에 현대적인 디자인 요소를 융합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안치되어 있는 약사여래상은 닌나지 절이 속한 진언종의 창시자 구카이(774~835년)가 중국에서 일본으로 가져온 것으로 여겨졌으며, 초자연적인 힘이 매우 강한 '비불(秘佛)'로서 공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986년에 닌나지 절이 이 상에 대한 과학적 조사를 허가하여 조사한 결과 정확한 제작연대가 특정되었습니다. 이 상은 기존에 생각했던 만큼 오래된 것이 아니라 1101년에 화재로 소실된 구카이 상의 복제품으로서 1103년에 공개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현재는 레이메이텐에서 볼 수 있으며 1990년에 일본 국보로 지정되었습니다.